

문 5. 다음 각 단락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물가 안정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경제 안정은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등 여러 거시 경제 정책을 통해 달성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통화 조절이 경제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통화 긴축을 통한 물가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와 정책 당국 뿐만 아니라 재계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안정화 정책은 자칫 실물 경제 활동에 과다한 충격을 줌으로써 당초 의도한 바와는 달리 실물 경기의 지나친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 나. 통화 긴축을 통한 안정화 정책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물가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간과하기 쉬운 경로는 노동 시장의 임금 계약으로 인한 명목 임금의 경직성을 통한 경로이다. 즉, 통화 긴축은 여러 경로와 시차 구조를 통해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명목 임금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실질 임금을 상승시켜 고용과 생산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다. 이러한 점에서 임금 물가 연동(wage indexation)은 인플레이션이 야기하는 경제적 왜곡을 해소하는 것 외에 경제 안정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명목 임금의 경직성이 초래하는 그러한 거시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라. 임금 물가 연동은 물가 불안이 상존하는 거시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에 수반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각종 중장기 계약에 내재하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수단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명시적이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거나 그 변동 폭이 클수록 임금이 물가 변동에 연동되는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마. 이러한 임금 물가 연동은 임금의 구매력 보전과 거시 경제의 안정을 목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여러 형태와 제도로 도입된 바 있으며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임금의 물가 연동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영속화하고 노동 시장의 기능을 위축시켜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 ① 가 - 통화 긴축이 경제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어 있으나 비판적인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 ② 나 - 통화 긴축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 경우 고용과 생산이 위축되고 명목 임금이 경직된다.
- ③ 다 - 임금 물가 연동은 경제 안정화 정책 추진 과정의 부작용을 감소시켜 준다.
- ④ 라 - 임금 물가 연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하며, 임금의 물가 연동 수준은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 ⑤ 마 - 임금 물가 연동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지만 그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 6. 통계적으로 불완전한 다음의 논증을 보완하여 논증의 설득력을 높이하고자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지적 사항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급발진이 보고된 차량 중 100대를 조사해 본 결과 1998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 생산된 차량의 경우 급발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① 표본의 크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최근에 생산된 차량’의 개념이 모호하다.
- ③ 표본의 추출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1998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의 급발진 보고를 조사하지 않았다.
- ⑤ 이제까지 운행된 전체 차량의 생산 연도별 분포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다.

문 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계속되는 고유가 행진으로 세계 경제가 위협받자, ‘미래의 석유’로 불리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층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연료 전지를 이용한 새로운 엔진을 속속 선보이면서 꿈으로만 여겼던 수소 에너지가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과연 수소가 석유를 대신해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원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수소 에너지의 실용화까지는 몇 가지 넘어야 할 중요한 산이 있다.

그 하나는 ㉠ 물로부터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전기 분해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효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에너지의 경제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

또 하나 ㉢ 연료 전지의 메커니즘은 비교적 간단하다. 연료 전지는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는데, 음극은 공기로부터 산소 이온을 채집하고, 양극은 산소 이온을 끌어당겨 연료와 결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결합 반응 결과 전자가 연료 전지로부터 이탈되어 나오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충분한 전기를 얻기 위해서는 연료 전지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

마지막으로 ㉤ 수소는 잘 알려진 대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달리는 자동차에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싣고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 과학자들은 현재의 기술 발전 추이라면 적어도 5년 이내에 수소를 에너지로 하는 자동차가 거리를 누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시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도 연료 전지 개발에 뛰어들어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

—<보 기>—

- 가.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 전지의 효율성 문제다.
- 나. 수소를 얼마나 안전하게 저장하느냐의 문제다.
- 다. 수소를 얼마나 값싸게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 라. 수소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경박단소(輕薄短小) 작업이 필수적이다.
- 마. 과학자들은 소위 압축 기술을 이용해 액체 상태의 수소를 작은 탱크 안에 구겨 넣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바. 과학자들은 전기 분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각종 촉매를 채용하거나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 ① 가 - 마 - 나 - 바 - 다 - 라
- ② 가 - 바 - 다 - 라 - 나 - 마
- ③ 가 - 바 - 다 - 마 - 나 - 라
- ④ 다 - 라 - 나 - 마 - 가 - 바
- ⑤ 다 - 바 - 가 - 라 - 나 - 마

문 8. 다음 상황에 대해 옳게 기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어느 지하철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허위 신고 등의 오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집단	상	황	신고자수 (명)	사고로 사망 했을 확률(%)
(가)	시체 또는 유골에서 DNA가 확인된 사망자		200	100
(나)	시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감시 카메라, 휴대폰 위치 추적 또는 통화 내역 등으로 사고를 당한 지하철에 탑승했음이 확인된 실종자		50	90
(다)	(가), (나) 집단에 해당되지 않지만 유품이 확인된 실종자		50	80
(라)	(가), (나), (다) 집단에 해당되지 않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람		100	50

※ 신고되지 않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사고 수습의 일환으로 유족에 대한 보상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 (가) 집단만 보상하는 방안
- (가), (나) 집단만 보상하는 방안
- (가), (나), (다) 집단만 보상하는 방안
- (가), (나), (다), (라) 집단 모두 보상하는 방안

실제로 화재로 사망한 사람 1인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생기는 문제의 크기를 ‘A’라고 하고, 허위로 실종 신고된 사람 1인이 보상을 받는 경우 생기는 문제의 크기를 ‘B’라고 한다. A를 1이라고 할 때, B를 각각 1, 0.5, 0.2, 0.1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전체 문제의 크기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었다.

<보 기>

ㄱ. (가) 집단만을 보상 대상으로 할 경우 부당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 A를 B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할수록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온다.

ㄷ. B를 A의 0.1배로 볼 때 문제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위에서 제시된 방안 중 (가), (나), (다), (라)의 모든 집단을 보상하는 방안이다.

ㄹ. A와 B를 동일하게 볼 때 (가) 집단만을 보상하는 방안이 위의 네 가지 방안 중에서 전체 문제의 크기가 제일 크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문 9. 다음은 조선 시대 기본 법전이었던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상속에 관한 부분이다. 이 내용을 토대로 당시의 상속 규정을 이해할 때 잘못된 것은?

부모의 생전에 나누지 않은 노비는 자녀의 생몰(生沒)과 관계없이 나누어 준다. 본인이 죽고 자손이 없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비의 수가 자녀의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적자녀(嫡子女)에게 우선 균급(均給)하고 그래도 남는 수가 있으면 승중자(承重子: 제사의 계승자)에게 먼저 주며, 또 나머지가 있으면 장유(長幼)의 차례로 준다. 적처(嫡妻)에게 자녀가 없으면 양첩자녀(良妾子女), 양첩자녀도 없으면 천첩자녀(賤妾子女)에게도 그와 같이 한다. 전지(田地)도 같다.

- ① 딸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었다.
- ② 부모의 생전에 상속을 마친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 ③ 자녀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성별에 따른 상속상 차별이 없었다.
- ④ 노비의 수에 따라 서자녀(庶子女)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⑤ 승중자는 부모가 물려주는 노비수에 관계없이 다른 자녀에 비해 많은 노비를 상속받을 수 있었다.

문 10. 다음 글을 읽고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UR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관세와 보조금을 매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 증가와 보조금 감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일부 품목도 있었지만, 관세화한 품목을 비롯 우리 농업에서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은 국내외 가격차만큼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보완 장치가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농업 협상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은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 폭과 방식 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만,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고 회원국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농업 협상이, 협상의 근거가 되는 도하각료 선언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UR 협상에 이어 관세와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협상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무역 왜곡적 보조금을 더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 무역 왜곡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정부가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관세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이 높은 수준의 관세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반영된 관세 감축 원칙이 정해진다면 우리의 경우 곡물 및 특용 작물, 양념류와 같이 현행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① 우리나라의 경우 쌀, 마늘 등은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에 해당될 것이다.
- ② 국내 보조금이 추가로 감축되면 대신에 쌀, 보리 등의 정부 구매량이 추가로 늘어날 것이다.
- ③ UR 협상에서는 농산물의 수입 금지나 허가 제도 등 비관세 수입 제한 조치를 관세화하고 관세를 축소하기로 하였을 것이다.
- ④ 감축 대상 국내 보조금은 농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어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 줄여나가야 하는 보조금이다.
- ⑤ 허용되는 보조금의 예로는 농산물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지 정리 사업, 수리 시설 개발 등 하부 구조 건설을 위한 보조금 등이 있을 것이다.

문 11. 모처럼 서류를 정리하려고 했던 회사원 P 씨는 지금 꽤 난처해하고 있다. 지난달 체결한 7건의 계약에 대한 자료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그만 커피를 엔질러 자료들에 잉크가 번져서 계약이 이루어진 날짜가 지워졌기 때문이다. P 씨는 기억을 더듬고, 잉크가 번지지 않은 자료에 있는 단서들을 근거로 7개의 회사(A, B, C, D, E, F, G)와 맺은 계약이 어떤 순서로 맺어진 것인지 정리하려고 한다. 그가 지금까지 모은 정보는 다음과 같다. (단, 위 7건의 계약 이외에 지난달에 체결한 계약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B와의 계약이 F와의 계약에 선행한다.
- G와의 계약은 D와의 계약보다 먼저 이루어졌는데, E와의 계약, F와의 계약보다는 나중에 이루어졌다.
- B와의 계약이 지난달 가장 먼저 맺어진 계약은 아니다.
- D와의 계약은 A와의 계약보다 먼저 이루어졌다.
- C와의 계약은 G와의 계약보다 나중에 이루어졌다.

“이 정보만으로 각각의 계약이 어느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군……” P 씨는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번지다가 만 종이에서 발견한 단서로 그는 이 7건의 계약의 순서를 정확하게 배열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중에 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정보는?

- ① E와의 계약은 B와의 계약에 선행한다.
- ② B와의 계약은 G와의 계약에 선행한다.
- ③ C와의 계약이 가장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 ④ D와의 계약은 A와의 계약과 인접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 ⑤ F와의 계약은 D와의 계약과 인접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문 12.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A형 결함을 지적하는 진술과 B형 결함을 지적하는 진술을 고른 것으로 올바른 것은?

○○기업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감각 기능을 소유한 로봇을 구매하였다. 도로, 항만 시설, 로켓 엔진의 결함을 재빨리 그리고 신속히 발견하는 것은 재난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더 나아가 그 로봇이 발견된 결함을 상위 부서에 순차적으로 보고하게끔 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프로그램은 다음 순서도(flowchart)와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

결함 보고 시작

→

직속 상위 부서에 보고

→

보고 수용

예

→

끝

아니요

↓

한 단계 더 높은 상위 부서에 보고

↑

보고 수용

프로그램이 밀줄 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거나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는 경우를 ‘A형 결함’이라고 하자. 프로그램의 A형 결함을 제거할지라도 프로그램이 수행할 수 없는 것들을 ‘B형 결함’이라고 하자. 기업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보기>와 같은 사항들이 토론되었다.

※ 단, 이 프로그램은 (끝)에 도달해야 종료한 것으로 간주함.

—<보 기>—

가. 긴급 상황에서는 시간 절약이 무척 중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순차적인 보고보다는 실제 관련 결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서에 먼저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나. 모든 상위 부서가 결함에 관한 보고를 무시했을 때 더 높은 부서를 찾을 수 없는 위의 프로그램은 멈출 수 없다.

다. 로봇도 결함 발견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인공 눈과 귀를 개발해야 한다.

라. 한 단계 높은 상위 부서가 존재하는데도 해당 부서를 찾지 못하는 프로그램 버그가 존재한다.

마. 결함에 관한 보고가 모든 상위 부서에 의해 무시되었을 때 신문사나 시민 단체에 연락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A형 결함 진술	B형 결함 진술
① 가	다
② 마	가
③ 나	라
④ 다	마
⑤ 라	가

문 13.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익의 영역이 확대되면 적국을 뚜렷이 가려내기가 어려워진다. 고도로 상호 작용하는 세계에서 한 국가의 적국은 동시에 그 국가의 협력국이 되기도 한다. 한 예로 소련 정부는 미국을 적국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양면성을 보였다. 그 이유는 소련이 미국을 무역 협력국이자 첨단 기술의 원천으로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만일 중복되는 국가 이익의 영역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 한 국가의 이익과 다른 국가의 이익이 같아질까? 그건 아니다. 고도로 상호 작용하는 세계에서 이익과 이익의 충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정되고 변형될 뿐이다. 이익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일은 상호 의존과 진보된 기술로부터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유토피아란 상호 작용 또는 기술 연속체를 한없이 따라가더라도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된 이익의 영역이 확장될 수는 있겠지만, 가치와 우선 순위의 차이와 중요한 상황적 차이 때문에 이익 갈등은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다.

- ① 주요 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적 국가 이익은 미래에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 ② 국가 간에 공유된 이익의 확장은 이익 갈등을 변화시키기는 하지만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 ③ 국가 이익은 기술적 진보의 차이와 상호 작용의 한계를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 ④ 세계 경제가 발전해 가면서 더 많은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이익들은 자연스럽게 조화된다.
- ⑤ 국가 이익이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됨에 따라, 한 국가의 이익은 점차 다른 국가들이 넓혀 놓았던 이익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문 14. 다음 글들의 문단 배열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우리의 생활 세계는 무수하고도 다양한 하위 세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활은 서로 환원될 수 없는 전혀 다른 이질적 세계들이 교차하는 복합적 영역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들은 서로 다른 목표, 구조, 관계, 적응 방식, 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다. 각 사람의 세계는 확실히 객관적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개성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의 삶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통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다양하고도 복잡하게 변하는 외부 세계를 인식할 때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각과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가 접하는 어떤 외부 세계도 절대적으로 순수한 상태로 우리의 의식 세계에 나타날 수가 없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 사물, 인간 활동 등은 그것에 대한 수용자, 해석자의 관점이 무엇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위상을 가지는 실체로 드러나게 된다.
- 다. 그러나 이런 이질적 개인의 삶과 그 하위 세계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해 간다. 때로는 서로 협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거나 투쟁하면서 자신의 존재 양식을 결정하기도 하고, 수많은 세계들이 복합적으로 얹혀서 간단히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세계는 모든 순간이 서로 연관되어 움직이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외부 세계 사이에는 연속적인 변증법적 변화가 진행된다. 유기체로서 세계는 어느 한 쪽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이해될 수 없으며, 반드시 얹혀진 나머지 요소를 필연적으로 함의하고 있다.
- 라. 따라서 개인이 어느 사회에,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하나의 사건, 사물, 인간 활동을 이해하는 것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 어느 사람에게는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한 지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외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이 어느 세계의 울타리 안에 속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마. 인간이 살아가면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자신만의 지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상대방의 인식에 어느 정도 감염이 되면서,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하면서도 동질적인 부분이 많아지도록 강제되면서 이루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는 받아들이는 사람만의 독특한 인식 세계를 구축하지만 그 구축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공통적인 요소를 확인하면서 이루어지고 그것은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 ① 가－나－다－라－마
- ② 가－다－나－마－라
- ③ 가－다－라－나－마
- ④ 마－가－나－다－라
- ⑤ 마－라－다－가－나

문 15. 다음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이 다른 것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 가. 국민 소득의 통계에는 환경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의 경제적 복지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산업화는 생산을 증대시켜 국민 소득을 더 크게 만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환경의 파괴를 가져와 경제적 복지에 나쁜 영향을 준다. 환경의 파괴가 우리의 강산을 보기 싫게 만들고 건강을 해친다면, 이 부분은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나. 어떤 상품이 지하 경제에서 생산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 더 작아질 리는 없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국민 소득 통계는 실제의 생활 수준을 지하 경제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만큼 과소 평가해서 보여 주게 된다. 국민 경제에서 지하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나라마다 다르고, 이에 따라 1인당 국민 소득의 크기가 실질적인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지하 경제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풍족한 경제 생활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 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하는 경제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인당 국민 소득이다. 세계 은행에서 나온 통계표는 세계 여러 나라를 1인당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고소득국, 중소득국, 저소득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겉으로는 고소득국이나 저소득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라는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다른 측면에서는 선진적인데 유독 1인당 국민 소득만 무척 낮은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 라. 국민 소득에는 경제적 복지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는 여가(餘暇)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의 복지 수준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나 대만의 근로자들은 유럽의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노동 시간이 길고 따라서 여가 시간이 더 짧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근로자와 똑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더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다면 그만큼 더 높은 경제적 복지를 누리는 셈이다.
- 마. 이를테면 이발 요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5천 원인데 일본에서는 원화로 3만 원이 되어 우리나라보다 무려 여섯 배나 높은 셈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이발사가 한 사람의 머리를 깎으면 같은 경제 행위를 하고도 우리나라보다 여섯 배나 큰 소득으로 국민 소득 통계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국민 소득의 수치에는 이와 같은 숫자의 마술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문 16. 다음 중 주장과 이를 강화하는 사실을 바르게 연결한 쌍만으로 모은 것은?

가. 주장: 생물체에 따라 최대 수명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
사실: 꿀벌의 경우 여왕벌이나 일벌이 모두 같은 애벌레로 출발하지만, 먹이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진다. 그 결과 여왕벌은 수명이 6년이 되지만 일벌들은 수명이 3~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나. 주장: 유전자에 노화 과정이 수록되어 있어서, 평생을 두고 이 유전자들이 연속적으로 발현됨으로써 노화가 일어난다.
사실: 선사 시대에 살던 인류의 수명은 18세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선사 시대는 역사 시대보다 훨씬 길다. 따라서 인류는 현재 평균 수명 75세의 시대보다 18세의 시대를 훨씬 더 길게 살아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노화 과정이 자연 도태에 의해 변천되어 왔다고 설명하기에는 18세의 수명에서 75세로의 변화가 너무나 급작스러운 것이다.

다. 주장: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
사실: 슈퍼옥사이드(superoxide)라는 독성이 강한 자유 라디칼이 산소 호흡 과정에서 생성되고, 이를 제거하는 효소인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superoxide dismutase)가 생물체에 존재하고 있어 이 독성이 강한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는데, 사람은 비교적 수명이 짧은 원숭이 무리에 비해 유전적으로 간장에서 이 효소의 활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효소는 모든 동물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구조나 기능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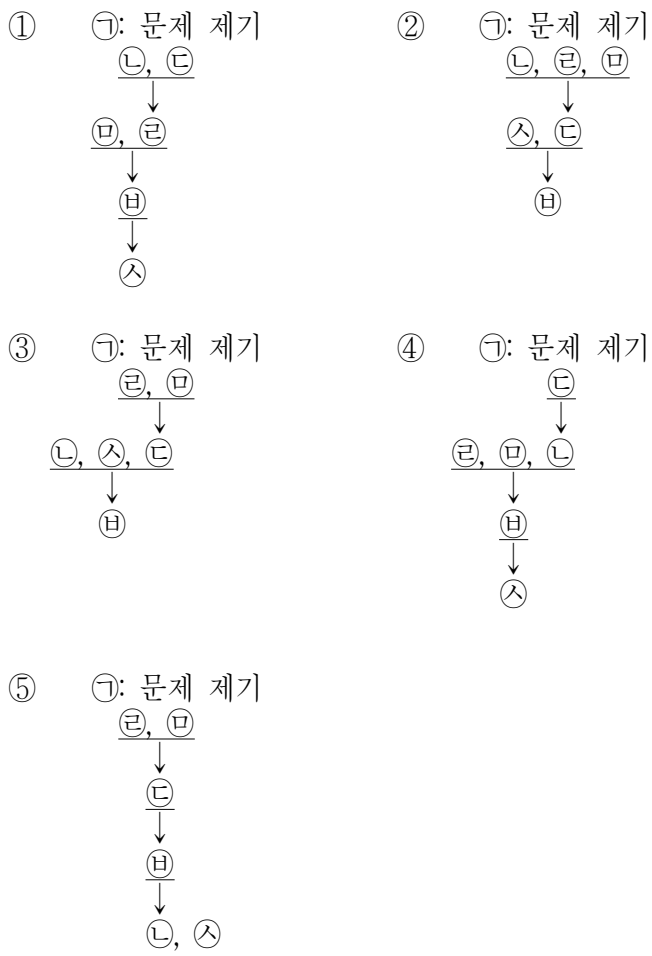
라. 주장: 환경으로부터 받은 피해가 체내에 축적됨으로써 RNA 전사 과정과 번역 과정의 오류에 의해 기능이 없는 단백질들이 만들어져서 노화가 일어난다.
사실: 노화된 적혈구에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발견되지만 성숙한 적혈구는 단백질 합성을 하지 않는다. 또한 노화 과정에서 변형된 단백질들이 대부분의 조직에 다량으로 축적된다는 증거도 거의 없다.

마. 주장: 생물체의 산소 소모가 빨라질수록, 생물체의 수명이 감소한다.
사실: 산소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유 라디칼에 의해 조직이 심각한 피해를 받음으로써, 노화 과정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① 가, 다 ② 나, 라
- ③ 다, 마 ④ 나, 다, 라
- ⑤ 다, 라, 마

문 17. 다음 글에 담긴 논증의 구조를 분석하여 도식화할 경우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는 밑줄 위의 문장들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문장을 논리적으로 지지함을 의미한다.)

㉠ ‘물리적·정신적 고통을 가해서 정보를 얻거나 처벌을 정당화하는 자백을 얻어내려는 일’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고문은 언제 어디서나 부당한 것인가? ㉡ 어떤 개인을 고문하는 것은 분명히 그를 죽이는 것보다 덜 심각한 잘못이다. ㉢ 그런데 대부분의 도덕 체계는 때때로 살인을 정당화한다. ㉣ 예컨대 제2차 세계 대전처럼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의 수행에서 살인은 도덕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 ㉤ 또 임무 수행 중에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자를 살인한 경찰은 훌륭한 임무 수행자로 표창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 살인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물리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인 고문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고문은 살인에 비하면 훨씬 덜 심각한 인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문 18. 어떤 살인 사건이 2003년 12월 23일 밤 11시에 한강 고수부지에서 발생했다. 범인은 한 명이며, 현장에서 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인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현장에 범인 외에 몇 명의 사람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용의자 A, B, C, D, E가 있다. 아래에는 이들의 진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다섯 사람 중에 오직 두 명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는 두 명 중에 한 명이 범인이라면, 누가 살인범인가?

- A: 나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밤 11시에 서울역에 있었다.
B: 그날 밤 11시에 나는 A, C와 함께 있었다.
C: B는 그날 밤 11시에 A와 춘천에 있었다.
D: B의 진술은 참이다.
E: C는 그날 밤 11시에 나와 단둘이 함께 있었다.

- ① A ② B
- ③ C ④ D
- ⑤ E

문 19. 다음 글에 나타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은 전지(全知)·전능(全能)·전선(全善)한 존재라고 여겨진다. 만일 신이 전지하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선하다면 이러한 악을 제거하길 원할 것이고, 또한 전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 중세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의지는 스스로 의지하지 않는 한 결코 악해지지 않는다. 의지의 결함은 외부의 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악이다. 이는 신이 부여한 좋은 본성을 저버리고 나쁜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탐욕은 황금에 내재되어 있는 악이 아니라, 정의에 어긋나게 황금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재된 악이다. 사치는 아름답고 멋진 대상 자체에 내재된 악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기쁨을 주는 대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절제를 망각하고 과도하게 감각적 즐거움을 탐닉하는 마음의 잘못이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의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최상의 상태로, 평등하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선으로 창조됐다. 어떤 대상은 개별적으로 분리해 볼 때 마치 아름다운 그림 속의 어두운 색과 같이 그 자체는 추해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멋진 질서와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전체 우주의 일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 ① 다른 사람의 악행의 결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 ② 갓 태어난 아기가 선천적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③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세상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하기에 적당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 ④ 지진,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 ⑤ 많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온갖 권력과 쾌락을 누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선과 악의 대결에서 항상 선이 승리하는 것만은 아님을 보여 준다.

문 20. 다음 중 ‘ㄱ. 반환하여야 한다’와 ‘ㄴ. 반환할 필요가 없다’의 판단과 그 이유에 대한 연결이 논리적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 김은 박의 중개 의뢰를 받아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성사시켜 주고 박으로부터 1천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 후에 박은 일정액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김에게 법정 수수료율 0.2%에 해당하는 금액 2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법원은 중개업자 김이 초과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되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ㄱ - 법령은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금지 규정에 위반된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② ㄱ -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그러한 금지 행위의 결과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의 취지가 있다.
- ③ ㄴ - 법령의 해석이 이미 이루어진 거래의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④ ㄴ -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가 효력이 없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
- ⑤ ㄴ -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으로 사인 간의 거래의 효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매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

문 21.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은?

유년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간주했는지, 또 이것 위에 세워진 것이 모두 얼마나 의심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학문에 있어 확고하고 불변하는 것을 세우려 한다면 일생에 한 번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전복시켜 최초의 토대에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몇 해 전에 깨달은 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다. 이 일은 오랫동안 연기해 왔으므로 내 여생을 다른 것에 소비한다면 죄를 짓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내 정신은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있고, 은은한 적막 속에서 평온한 휴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의견을 진지하고 자유롭게 전복시켜 볼 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모든 의견이 거짓임을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다. 이것은 내가 도저히 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성이 설득하고 있는 바는 아주 확실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명백히 거짓인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의견들 각각에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견 전체를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의견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일이기에 말이다. 이보다는 오히려 토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것도 저절로 무너질 것이기에, 기존의 의견이 의존하고 있는 원리 자체를 바로 검토해 보자.

- ① 의견들 사이에는 쌍방향적 의존 관계가 있다.
- ② 거짓된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무너지면 토대 자체도 무너진다.
- ③ 거짓임을 증명할 수 없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의심할 수 없다.
- ④ 그동안 거짓이면서도 참인 것으로 간주해 왔던 것을 하나하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⑤ 어떤 사람의 최초의 토대가 되는 의견은 그 사람의 다른 의견에 의존하지 않는다.

문 22. [A]에서 정의한 인과 관계에 따라 [B]의 인지 지도를 올바르게 해석한 사람은?

[A]

‘+’ 인과 관계: 인과 관계의 증가
예) 폭우가 ‘증가’하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폭우가 ‘감소’하면 교통사고도 ‘감소’한다.

폭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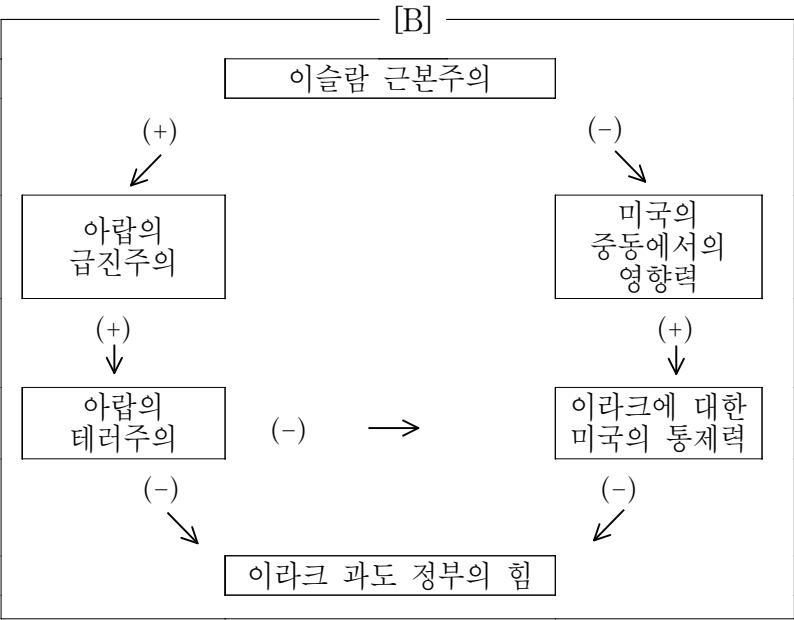
교통사고

‘-’ 인과 관계: 인과 관계의 감소
예) 항생제 남용이 ‘증가’하면 면역력은 ‘감소’하고, 항생제 남용이 ‘감소’하면 면역력은 ‘증가’한다.

항생제 남용

(-) →

면역력



- <보 기>
- 일선: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화되면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은 항상 약화될 것이다.
 - 이종: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화되면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은 강화되는 경우도, 약화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삼룡: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화되면 이라크 과도 정부의 힘은 항상 강화될 것이다.
 - 사영: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화되면 이라크 과도 정부의 힘은 강화되는 경우도, 약화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오훈: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면 이라크 과도 정부의 힘이 강화될 것이다.

- ① 일선, 삼룡 ② 일선, 사영
- ③ 이종, 삼룡 ④ 삼룡, 오훈
- ⑤ 사영, 오훈

문 23. 다음의 글은 논증을 포함하고 있다. 이 논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논증이 B논증보다 더 강하다.”는 것은 A논증이 B논증보다 전제가 결론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새 TV를 사려고 한다. 그런데 내 친구 영주가 최근에 ‘가나’ 회사에서 생산된 TV를 샀는데, 화질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영주가 산 ‘가나’ 회사 제품의 TV를 사려고 한다. 그러면 화질이 뛰어난 TV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① <영주 이외에 옆집과 내 삼촌 집도 영주가 산 제품과 동일한 TV를 최근에 구매했다. 그런데 그 TV들이 모두 뛰어난 화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위 글에 첨가한 새로운 논증은 원래 논증보다 더 강해지지도 약해지지도 않는다.
- ② <5명의 다른 친구들도 영주가 산 TV와 동일한 것을 구매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에서는 타사 제품 TV들도 역시 좋은 화질을 보여 준다.>라는 사실을 위 글에 첨가한 새로운 논증은 원래 논증보다 더 강해진다.
- ③ <영주의 TV는 6개월 전에 산 것인데, 지금 내가 사려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화면 튜브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모두 동일한 부속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위 글에 첨가한 새로운 논증은 원래 논증보다 더 약해지지도 않는다.
- ④ <영주는 아파트의 공용 안테나 이외에도 고성능 안테나를 집에 설치하여 쓰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장만할 돈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의 공용 안테나에만 연결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위 글에 첨가한 새로운 논증은 원래 논증보다 더 강해진다.
- ⑤ <영주는 최근 호우로 TV 안테나 시설이 망가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나는 대형 TV 안테나 시설이 설치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위 글에 첨가한 새로운 논증은 원래 논증보다 더 약해진다.

문 24. 다음 글에 비추어 볼 때, 이 실험에서 반박하고자 했던 이론은?

19세기 후반, 한 과학자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그는 수평으로 S자 형태의 긴 목을 가진 플라스크를 고안하였는데, 싱크대의 배수관처럼 휘어진 이 플라스크의 목은 먼지나 미생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텅으로 작용하였다. 그는 고깃국을 이 플라스크에 넣고 김이 날 때까지 이를 가열하여 플라스크 안의 세균을 살균하였다. 이렇게 해서 공기는 안으로 흘러들어 올 수 있지만, 공기 중의 세균이나 먼지는 플라스크의 구부러진 목 부분에 떨어져 고깃국에 닿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그는 목이 곧은 다른 플라스크를 만들었다. 이 플라스크는 마개를 열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어 오도록 되어 있어서, 이와 함께 세균도 따라 들어오게 마련이었다. 그러고는 두 플라스크에서 생물이 발생하기를 기다렸다. 그 결과 목이 구부러진 플라스크 속의 고깃국은 부패하지 않은 반면 목이 곧은 플라스크 속의 고깃국은 모두 썩어버리고 말았다.

- ① 공기 중에는 생명의 원기(元氣)를 지닌 미생물이 존재한다.
- ② 생물은 어버이가 없이도 생길 수 있다. 즉 생물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 ③ 사용 빈도가 높은 기관은 진화하고 사용되지 않은 기관은 퇴화하여 생기는 변화가 자손에게 전달된다.
- ④ 동물의 기관 중에서도 사용 빈도가 높은 유용한 기관은 진화하고 반대로 사용되지 않은 기관은 퇴화한다.
- ⑤ 새로운 종은 바다나 사막과 같이 지리적으로 격리된 곳에서 생긴다. 즉 지리적으로 격리된 집단은 원래의 집단하고는 교배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변화하여 새로운 종이 형성된다.

문 25. 다음 글로부터 알 수 있는 엡실론 B의 특성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성운*이 중력 수축하여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기 위해서는 질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질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행성이 되고 만다. 태양계의 거대 행성 목성이 그런 경우이다. 그렇지만 간신히 턱걸이해서 별이 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별이 바로 갈색 왜성이다. 유럽남천문대(ESO)의 천문학자들은 태양 근처에서 어둡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별을 발견했다. 태양에서 12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이 별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 중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갈색 왜성으로 밝혀졌다. 엡실론 B의 특성은 유럽남천문대의 3.5m NTT(New Technology Telescope)로 확인되었다. 이 갈색 왜성은 태양계의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의 약 45배 정도 크기이며, 표면 온도는 1,000 ℃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소위 거대한 행성과 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T왜성의 범주에 속한다. 엡실론 B는 가장 가깝고 가장 밝은 T왜성인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이 새로운 별의 연구를 통해 다른 특이한 천체의 진화와 형성은 물론, 행성과 별 사이의 경계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성운(星雲, nebula):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가스와 먼지 등으로 이루어진 물질.

—<보 기>—

- ㄱ. 지금까지 알려진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갈색 왜성이다.
- ㄴ. 지구에서 볼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다.
- ㄷ. 별이 행성으로 쇠퇴해 가는 진화 과정의 중간에 있는 갈색 왜성이다.
- ㄹ.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 ㅁ. 중력 수축으로 생성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ㅁ
- ⑤ ㄴ, ㄷ, ㄹ

문 26. 다음 글에서 주장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적 활동이란 결국 표현적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입장이 있다. 이런 입장을 ‘표현론’이라고 흔히 부른다. 표현론자들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동안에 예술가들은 어떤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곤 한다. 또한 이런 감정에 사로잡힌 예술가들은 그 감정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표현론에 의하면, 이렇게 창작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 역시 어떤 감정 상태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술 작품이 갖는 표현적 성질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몽크라는 화가가 그린 ‘절규’라는 작품이 있다. 이 그림에는 섬뜩하게 묘사된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감싸며 절규하는 장면이 있다. 그런데 몽크가 별다른 감정의 동요 없이, 아니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려냈다고 하자. 하지만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공포스러움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표현론은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다.

- ① 모든 예술 작품이 감정의 표현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 ② 몽크는 사실 공포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 ‘절규’를 완성했다.
- ③ 예술가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는지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 ④ 표현론에 의하면 창작자의 감정 상태와 감상자의 감정 상태가 일치해야 한다.
- ⑤ 표현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감상자보다 강렬한 감정 상태에 있어야 한다.

문 27. 다음 글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유한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무한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관념이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무한히 큰 것, 빠른 것, 무한의 시간, 무한의 힘에 대한 연상을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무한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종말이나 한계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표시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의 이름은 부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 왜냐하면 신은 불가사의한 것이고 그의 힘과 위대성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그를 찬송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감각에 의하여 먼저 인식된 것이기에 감각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사물을 표현하는 생각도 형성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라도 사물이나 현상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크기로 국한하여 인식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물이 전부 한 곳에 존재하는 동시에 다른 장소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은 아직 인지된 적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면서, 기만적인 철학자나 사기적인 스콜라 철학자로부터 차용해 온 부조리한 어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① 무한 자체는 우리가 감각으로써 경험할 수 없다.
- ②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 있다.
- ③ 맹인은 색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나 관념을 형성할 수 없다.
- ④ 유니콘은 우리가 감각으로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상상할 수는 있다.
- ⑤ 신을 실제로 만난 이들이 있다면 이들은 신의 이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 28. 정책 평가는 욕구 평가, 과정 평가, 평가성 사정, 결과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글을 읽고 ‘과정 평가’의 관점에서 평가자가 물어야 할 질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중고 PC 보급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정보화에 소외되어 온 계층에게 정보화의 혜택을 부여하여 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데 있다.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으로도 알려진 이 사업은 정부와 공공 기관, 민간 기업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 PC를 수집하고 이를 정비하여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생활 보호 대상자, 복지 시설 등 정보화에 소외된 계층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34,363대의 중고 PC를 기증받았으며, 23,305대를 1,533개 사회 복지 시설 및 단체와 5,681명의 개인에게 보급하였다.

※ 과정 평가란 사업의 목적물이 적절한 대상 집단에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평가 유형을 의미한다.

- ① 기증받은 중고 PC의 수가 전년과 대비하여 얼마만큼 증가하였는지?
- ② 이 사업을 통해 중고 PC를 보급받은 이들이 정보화 소외 계층을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지?
- ③ 집행된 중고 PC 보급 사업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기에 앞서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 ④ 이 사업의 주체인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대상 집단인 정보화 소외 계층의 정보화 수요를 잘 파악하였는지?
- ⑤ 이 사업으로 중고 PC를 무상으로 보급받은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 계층들이 이를 보급받지 않은 정보화 소외 계층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는지?

문 29.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리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달에서 대낮에 왜 별이 안 보이는가의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지구에서는 왜 대낮에 별이 안 보이는가를 생각해 보자.

이 문제는 ‘별에서 오는 신호(즉, 빛)가 지상에 있는 관측자에게 제대로 수신되는가’라는 통신 문제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신에서 신호가 제대로 수신되지 않는 것은 신호(S) 대 잡음(N)의 비(比)인 S/N가 작아졌을 때이다. 따라서 대낮에 별이 안 보이는 원인 중의 하나는 이 S/N에서 S가 약화된 경우이고, 또 하나는 S는 약하지 않지만 N이 강한 경우이다.

- ① 달에서는 대기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어도 하늘 전체가 깜깜해 보인다.
- ② 나이트 클럽에서 요란하게 디스코 음악을 틀어 놓았을 때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③ 금성은 항상 태양 가까이 있으며, 지구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을 때 매우 밝아진다. 가장 밝아질 무렵에는 금성이 대낮에도 보이는 수가 있다.
- ④ 날이 밝아지면서 조금 전까지 보였던 별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대기 속의 공기 분자에 의해 산란되는 태양광의 정도가 별의 경우보다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다.
- ⑤ 금성 이외의 별로서 대낮에도 보였다는 별이 역사상 두 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별은 모두 별이 대폭발을 일으켜 중성자 별이 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을 냈다.

문 30. 다음 글에 나타나 있는 특허청의 규정을 감안할 때, S전자 특허팀 관계자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특허청은 “제 경비를 제외한 순수 실시수입액(발명을 상품화해 벌어들인 돈)의 100분의 15 이상을 발명 종업원에게 준다.”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었다.

- 중 략 -

이에 대해 S전자 특허팀 관계자는 “기업에 속한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가 연구 개발인데 그 성과물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보상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기업은 1년에 보통 수천 건의 종업원 발명을 접수하며 이 중 5~10%를 상품에 응용한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발명 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를 회사에 양도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종업원에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① 기업에 속한 연구원의 연구 성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회사에 속하는 것이 당연하다.
- ② 기업에서 획기적인 발명에 대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의 보상금을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한 예는 거의 없다.
- ③ 직무 발명에 대하여 충분한 성과급을 보장하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연구 개발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 ④ 미국 기업들은 사내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창의적인 기술로 돈을 벌었을 경우 개발자들에게 로열티나 스톡옵션 등으로 수익을 나누어 주어 신기술 개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⑤ 회사에 수십억 원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역대 연봉의 보험사 영업 사원이 나오는 이유는 영업 활동에 따른 충분한 성과급을 지급하기 때문인데, 영업 활동과 연구 활동의 성과급에 대하여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 31. 다음 글에 담겨 있는 주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모든 사물의 행위와 운동을 규제하는 신의 지혜가 곧 영원법이며, 모든 사물로 하여금 각각에 부여된 고유한 목표를 지향하도록 만드는 운동력으로서의 신의 지혜, 곧 영원법은 따라서 자연법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사물은 영원법에 구속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신의 섭리의 일부이며, 또한 모든 사물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정당한 행동과 목표를 각각 지향하려는 본성적 경향을 영원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떠한 형태로든 영원법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신의 섭리의 일부, 즉 이의 능동적인 참여자로 만듦으로써, 다시 말해서 자신의 행동과 다른 피조물의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매우 독특한 형태로 스스로를 신의 섭리 하에 놓이게 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은 신의 이성 그 자체의 일부이며, 또한 인간에게 부여된 정당한 행동과 목표를 지향하려는 본성적인 경향도 신의 이성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이성적인 피조물에 의한 영원법에의 이 같은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 ① 인간이 아닌 피조물도 신의 섭리에 참여한다.
- ② 인간 이성을 통해 이해된 영원법이 바로 자연법이다.
- ③ 자연법은 인간 이성이 참여하고 추구하는 영원법이다.
- ④ 어떤 행위의 선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신이 그 행위를 명령했느냐 또는 금지했느냐 하는 데 있다.
- ⑤ 모든 피조물에게 고유한 행동의 패턴과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지향하도록 만드는 본성적 운동력이 신의 지혜, 곧 영원법이다.

문 3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화론자는 어떠한 한 종에 대해 과거의 진화적 내용을 증명하거나 앞으로의 진화를 예견할 수 없고 단지 어떤 사실을 해석하거나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만들 뿐이다. 왜냐하면 과거 일회성의 사건은 반복되거나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예견은 검증된 사실로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진화론자와 역사학자는 닮은 점이 있다. 그러나 진화론자는 역사학자보다는 상당히 많은 과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상호 연관성을 가진 생물학적 법칙, 객관적 증거인 상동 기관, 일반적인 과학의 법칙 등으로부터 체계를 세울 수 있다. 상동 기관은 다양한 생물이 전혀 별개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좋은 증거이기 때문이다. 진화론은 생물의 속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진화론에는 물리학에 견줄 수 있는 법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진화론이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한다.

- ① 진화론은 인문 과학의 속성과 자연 과학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 ② 진화론은 객관적 증거들을 이용하여 생명 현상의 법칙을 세운다.
- ③ 진화론이 과학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칙의 정립이 시급하다.
- ④ 진화론은 과거의 사실을 검증함으로써 진화 현상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 ⑤ 진화론이 법칙의 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학과의 상호 연관성을 배제해야 한다.

문 33. 다음은 18세기 유럽의 두 화학자들 간에 벌어진 가상적 대화이다. 두 사람의 보고와 주장이 모두 참이라고 가정할 경우, <보기> 중 반드시 거짓인 주장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A: 이번 실험은 숯이 탈 경우 숯에서 다량의 플로지스톤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 주었습니다. 플로지스톤이 방출되었다면 숯이 타고 남는 재는 무게가 숯보다 당연히 줄어들었을 수밖에 없지요.

B: 그렇습니다. 물론 녹슨 철(鐵)이 녹슬기 전의 상태보다 더 무겁다는 실험 결과들이 몇 차례 보고된 바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A: 그건 이렇습니다. 만일 철이 녹스는 것 역시 플로지스톤의 방출 과정이라는 견해가 옳다면, 금속의 플로지스톤은 음(陰)의 무게를 갖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금속의 경우엔 플로지스톤이 적을수록 무게가 더 커지는 것이죠.

B: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철이 녹슬 때 늘어났다는 무게가 워낙 작기 때문에 실험의 신빙성은 대단히 의심스럽지 않은가요?

—<보 기>—

ㄱ. 철이 녹스는 현상은 플로지스톤과 연관성이 있다.

ㄴ. 플로지스톤은 음(-)의 무게만을 지녔다.

ㄷ. 철이 녹슬 때 미세하게나마 무게가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ㄹ. 플로지스톤 이론은 실험 결과와 잘 맞지 않으므로 다른 이론을 모색해야 한다.

ㅁ. 금속의 플로지스톤과 숯의 플로지스톤은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ㄹ, ㅁ

문 34. 다음 글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이 없는 ‘미래의 사무실’을 예견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전자적 형태를 띠고 있는 경영 정보는 1%에 불과하다. 더구나 새로운 기술은 능률과 생산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거의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컴퓨터와 생산성 간의 역설’이 널리 퍼지고 있다. MIT의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Robert Solow)는 “도처에 컴퓨터가 있지만 생산성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이 그 약속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기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흡수할 것인지를 배우는 과정에 있다.

많은 경우에 기술은 기존 형태의 조직 속에 스며든다. 기술은 반복적인 생산 공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며, 노동자와 경영자는 컴퓨터를 이용한다. 여러 분석가들은 생산 과정을 통합하는 기술의 잠재력과 그 이점을 취하려면, 조직이 부분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소수 기업은 이 점을 인식하였다. 예를 들면 프리트레이사와 레이캄사의 경우가 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증대한 사례로 손꼽힌다. 이렇게 조직을 성공적으로 재구조화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많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개별 기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 간에 네트워킹이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한 사무실이 아무리 훌륭한 장비와 컴퓨터에 능숙한 작업진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컴퓨터 시스템 간에 네트워킹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무실이나 그 회사의 주 컴퓨터 내에 있는 핵심적인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① 컴퓨터를 통한 새로운 기술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온다.
- ② 신기술 자체보다 조직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다.
- ③ 생산성 역설은 혁명적 기술의 초기 단계에서는 필연적이다.
- ④ 시스템 간 컴퓨터 네트워킹의 부재가 생산성 정체의 주 원인이다.
- ⑤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

문 35.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라고 주장한다. ㉡ 그들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기준을 찾고자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경계선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뿐이라고 주장되곤 했다. ㉣ 갈라파고 섬의 딱따구리는 나무의 틈 속에서 벌레를 파내기 위해서 선인장 가시를 사용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 다른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도, 인간만이 유일하게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주장되었다. ㉥ 구달(Jane Goodall)은 탄자니아의 정글에 사는 침팬지가 나뭇잎을 씹어 물을 적실 스펀지를 만들고, 벌레를 잡을 도구를 만들기 위해 가지에서 잎을 훔치는 것을 발견했다. ㉦ 언어의 사용이 인간과 동물의 경계라고 주장되기도 하였다. ㉧ 침팬지와 고릴라와 오랑우탄은 귀머거리의 수신호인 미국식 수화를 배웠으며, 고래와 돌고래는 그들 나름의 복잡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주장은, 서구 문명의 역사에서 별로 의심되지 않았지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 ① ㉡은 ㉠의 부연이다.
- ② ㉢은 ㉠의 근거이다.
- ③ ㉥은 ㉢의 반례이다.
- ④ ㉢, ㉥은 같은 역할을 한다.
- ⑤ ㉢은 ㉡을 뒷받침한다.

문 36. 다음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고 왕에게 올린 글이다. 이 글에 드러나는 역사 의식과 편찬 배경을 바르게 묶은 것은?

우리 동방 삼국은 역사가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을 서책(書冊)에 기록해야 할 것이므로 늙은 신(臣)에게 명하여 편수케 하셨지만, 스스로 돌아보건대 부족함이 많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생각컨대 성상 폐하께서 (중략) 말씀하시기를, “지금의 학사대부(學士大夫)가 오경(五經)·제자(諸子)의 책이라든지 진한(秦漢) 역대의 역사에 대하여는 혹 널리 통하여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실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망연(茫然)하여 그 시말(始末)을 알지 못하니 매우 유감스럽다. 더구나 신라·고구려·백제의 삼국이 정립(鼎立)하여 능히 예(禮)로써 중국과 교통했기에 범엽(范曄)의 한서[後漢書]라든지 송기(宋祁)의 당서(唐書)에 그 열전이 있지만, 그 사서(史書)는 자기 국내에 관한 것을 상세히 하고 외국에 관한 것은 간략히 하여 자세히 신지 않았다. 또 삼국의 고기(古記)로 말하면 글이 거칠고 졸렬하며 사적이 누락된 것이 많으므로 임금의 선악(善惡)이나 신하의 충사(忠邪), 나라의安危(安危), 인민의 치란(治亂)에 관한 것을 다 드러내어 후세에 권계(勸戒)를 보이지 못한다. 마땅히 삼장(三長)의 재(才)를 얻어 일가(一家)의 역사를 완성하고, 이를 만세에 물려주어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중략) 한껏 정력을 다하여 겨우 책을 만들었으나 결국 보잘것없이 스스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바라오니 성상 폐하께서 이 엉성한 편찬을 양해하여 주시고 망녕되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보 기>—

ㄱ. 역사책을 새롭게 편찬하는 일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ㄴ. 당시 사람들은 역사가 후세의 교훈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ㄷ. 삼국에 관한 역사 기록이 없었던 점이 『삼국사기』 편찬의 직접적 동기였다.

ㄹ. 지식인들이 중국사보다 자기 역사를 잘 모르는 것이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37. 다음 글에서 결론이 도출되는 방식을 가장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우주 공간에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수많은 별들이 존재한다는 이론에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으나, 말 그대로 쌍둥이 지구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쌍둥이 지구가 존재한다면, 쌍둥이 지구에는 나의 쌍둥이가 존재할 것이다. 나의 쌍둥이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부모를 공유해야 하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므로, ‘쌍둥이’에 대한 글자 그대로의 해석은 제외시켜야 한다. 여기서 ‘쌍둥이’란 신체적 구조와 사고방식에 있어서 나와 매우 유사한 존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자. 이제 나의 쌍둥이 형제가 살고 있는 이 쌍둥이 지구의 환경이 지구와 매우 흡사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구분할 수 있다. 쌍둥이 지구의 환경이 현재 지구의 환경과 비슷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화성은 지구와 환경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하물며 지구와 비슷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남는 생명체가 나와 신체적 구조가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지구와 환경이 유사한 쌍둥이 지구가 있어서, 나와 나의 ‘쌍둥이’ 형제가 만났다고 하자. 아무리 환경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와 그는 사고방식이 동일할 수 없다. 만일 동일하다면, 나는 지구와 쌍둥이 지구를 구별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지구는 하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 ① 반박하려는 주장이 옳다면 모순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 ② 반박하려는 일반적인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례를 제시함으로써
- ③ 반박하려는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두 가능성 중 한 가지를 제거함으로써
- ④ 주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일상적인 사용과는 어긋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 ⑤ 주요한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